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WE WERE NEVER HERE

가제 : 우리 여기 온 적 없어

저자 : Krystal Sutherland

출판사: Putnam

발행일: 2016년 가을

분량 : -

장르 : YA 소설



학교 신문사에서 만난 수수께끼 같은 소녀와 늘 영화 같은 사랑을 꿈꾸던 순진한 소년의 만남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반이 된 그레이스에겐 어떤 공간에서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옷차림이 완전히 남자 같다. 소년처럼 귀여운 느낌이 아니라, 말 그대로 광마른 몸에 지나치게 험렁한 남자 옷을 그것도 계절에도 맞지 않게 유난히 두껍고 온 몸을 다 가리는 옷들만 입는다. 그리고 한 눈에 보기에 잘 씻지 않는 지저분한 인상에 별로 건강해 보이지도 않는다. 어떨 때는 약에 절어 사는 사람처럼 눈빛은 흐릿하고 머리카락도 얼굴도 늘 푸석 푸석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특징은, 그레이스가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는 사실이다. 헨리는 이런 그레이스에게 마음을 완전히 빼앗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물론 그레이스는 평소 생각했던 이상형과 완전히 거리가 먼 타입이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오면,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영화에서 그려지듯 온 세상이 갑자기 멈춘 것처럼 느껴지고 가슴이 엄청나게 콩닥거리리라 막연하게 상상했지만 이런 예상을 다 빗나간 일이 벌어진 것이다. 헨리가 그레이스를 처음 만난 건 개학 직후 어느 교실이었고, 수업 시작 후 10분이나 늦게 교실 문에 들어선 그녀는 헨리에게 그런 낭만적인 느낌이나 순간의 찰릿함을 전혀 안겨주지 않았다. 헨리는 여학생들에게 목을 매고 연애에 푹 빠져 사는 친구들과 달리 그냥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성적을 잘 받아서 아이비리그 대학생이 되고 싶은 양전한 남학생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방과 후, 그레이스와 함께 방교무실로 찾아오라는 영어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메시지가 헨리의 평범한 일상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사랑의 힘으로 슬픔을 치유해주려는 결심, 혼란스러운 두 사람의 사랑

무슨 일일까, 궁금해하며 찾아간 교무실에서 선생님은 헨리와 그레이스에게 학교 신문사를 책임 지고 운영하는 에디터로 추천할 테니 말해보라고 권했다. 평소 그런 일에 관심이 많았던 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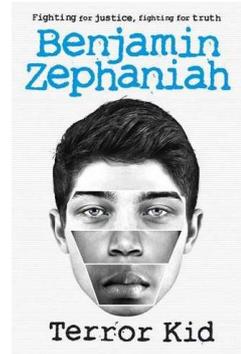
는 선생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어떤 일인지 그레이스도 수락한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한다. 헨리는 그레이스와 함께 지내면서 이상하게 끌리는 마음을 느낀다. 분명 보통의 남학생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데, 뭔가 베일에 싸인 그레이스는 헨리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왜 그레이스는 매일 오후만 되면 학교 안 포도밭으로 가는 걸까? 옷차림이나 외모에 전혀 신경을 안 쓸 정도로 속에 끔끔 감추고 있는 비밀, 저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그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그레이스에겐 왜 항상 깊은 슬픔이 느껴질까? 헨리는 지금껏 만난 모든 사람을 통틀어 가장 낯설고 희한한 이 소녀에게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히고 만다. 그러나 그레이스는 남자를 만나거나 사랑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사실 그레이스는 불과 석 달 전, 평생 잊지 못할 큰 아픔을 겪었다. 남자 친구인 도미닉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자신은 다리를 크게 다치고 살아 남았지만 도미닉은 그대로 세상을 떠나 버렸다. 그레이스는 그 사고의 충격과 자신만 계속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죄책감에서 여전히 벗어나지도 못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견디고만 있었다. 헨리는 어떨 땐 자신에게 기대며 마음을 받아주는 듯하다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매몰차게 대하는 그레이스의 혼란스러운 감정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그녀를 위로하고, 그 무거운 슬픔을 자신이 낫게 해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 헨리가 꿈꾸는 위대한 사랑의 힘이 정말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저자 소개>

크리스탈 서덜랜드(Krystal Sutherland)는 호주에서 여호와의 증인 집안에서 태어나 해리포터를 읽으면 안 된다는 규칙을 깨고 열살 때 도서관에서 몰래 전편을 읽은 후 책의 세계에 빠져 시드니, 암스테르담에서 잡지사 에디터로, 해외 특파원으로 일했다. 다양한 간행물에 글을 기고하며 호주 '퀸즐랜드 젊은 작가상' 후보에도 올랐다.

제목 : TERROR KID
가제 : 테러리스트 소년
저자 : Benjamin Zephaniah
출판사: Hot Key Books
발행일: 2014년 8월 28일
분량 : 20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가디언>지 선정 2014년 10대가 읽어야 할 소설에 오른 소설, 착실하게 법을 잘 지키며
양전하게 지내던 한 소년이 위험한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히고 만 사연**

금요일 밤, 리코는 우연히 들른 버밍엄의 쇼핑몰에서 한 무리의 폭도들이 한 스포츠용품점을 무자비하게 덮치는 장면을 목격했다. 부츠를 신고 보안경까지 쓴 그 험악한 무리들은 쇼핑 카트로 상점 유리를 있는 힘껏 들이 받아 박살을 내고는 우르르 쏟아져 들어가 공이며 야구 방망이, 운동복, 운동화 등을 닥치는 대로 쓸어 담았다. 5일 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한 젊은 여성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항의의 뜻으로 시작된 젊은 폭도들의 기습 공격 사태는 브리스톨, 셸포드, 노팅엄, 맨체스터를 거쳐 리코가 사는 버밍엄까지 번진 것이다. 나라 전체가 떠들썩하지만, 젊은이들의 기세는 도통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쇼핑몰 밖으로 나간 리코는 경찰 병력이 우르르 몰려드는 모습을 보면서 집으로 발길을 옮겼다. 하지만 불과 몇 걸음 가지도 못하고 웬 남자들에게 붙들리고 말았다. 순식간에 둘러싼 네 명의 건장한 경찰관이었다. 조금 전 상점을 공격한 무리와 리코를 한 패로 착각한 경찰들은 뭇 훔쳤냐고 따지기 시작하고, 리코는 침착하게 자신은 이 일과 무관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리코의 말을 거짓말로 확신한 경찰들은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바닥에 쓰러뜨리고 수갑을 채웠다. 리코는 그 상태로 끌려가 강제로 경찰차에 타야 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게 경찰에 붙들린 건 처음이 아니었다. 그리고 왜 이런 대우를 받는지도 리코는 잘 안다. 부모님이 둘 다 스페인 집시 출신이기 때문이다.

스페인에서 지내던 시절, 부모님은 정규 교육을 거부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전형적인 집시였다. 하지만 마침내 새 삶을 살기로 결심한 부모님은 리코를 데리고 영국 버밍엄으로 건너와 가정을 꾸렸다. 그리고 아빠는 공사장에서, 엄마는 잉글랜드의 어느 열악한 의류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엄마는 뒤늦게 대학에도 입학해 전문 간호사가 됐다. 리코는 버밍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토박이로 살았고, 다른 집시들도 그가 집시 핏줄인 걸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외모에서나 억양에서나 전혀 집시 같은 면모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출신을 아는 사람들은 리코와 부모님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다. 그리고 리코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단 한가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사회 정의, 옳은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테러리스트’를 정의하고 구분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TV를 통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굶어 죽는 사람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도망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리코는 왜 세상은 이토록 평등하지 못한지, 왜 정의가 힘을 얻지 못할까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아무 잘못 없이 차별 받고 고통 받는 사람들이 늘 안타까웠고 할 수만 있다면 도와주고 싶었다. 다만 리코의 그 분노와 열정은 고요하게 감추어져 있었다. 폭력을 싫어하는 그로썬 내면에서만 뜨겁게 피어 오르는 그런 분노였다. 하지만 그런 리코에게 변화가 찾아왔다.

출신 때문에 조금이라도 눈에 띄는 행동을 하면 누구보다 먼저 의심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아는 리코는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사회 질서에 순응하며 사는 삶은 부당함에 대한 리코의 분노와 좌절만 키울 뿐이었다. 이제는 생각만 하지 말고 뭔가 행동으로 옮기고 싶었다. 바로 그 때, ‘스피치’라는 인물이 리코에게 접근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해킹 활동으로 사회 변화를 꿈꾸던 리코의 속내를 꿰뚫은 그 수수께끼 같은 존재는 리코에게 사회에 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만천하에 알릴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제시한다. 바로 사이버 시위였다. 폭력을 쓰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 공간에서 시위를 벌인다는 아이디어는 리코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그 때부터 사태는 꼬이기 시작한다.

끔찍한 범죄에 휘말린 소년. 전혀 그런 일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던 착실한 소년이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충격적인 과정이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테러리스트’의 정의는 무엇이며, 누가 그것을 결정할까 고민하게 된다. 정의에 대해, 무엇이 옳은 일이며 그 일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 있는지를 한 소년이 겪는 너무나 현실적인 일들을 통해 생생하게 그린 소설이다. 2014년 <가디언> 선정 ‘십대가 읽어야 할 도서’, <텔레그래프> 선정 ‘가을철 최고의 아동 도서’에 이름을 올린 책이다.

<저자 소개>

벤자민 스바냐(Benjamin Zephaniah)는 정치적인 주제로 시를 써서 공연을 하는 예술가로, 영국에서는 열다섯 살 때부터 국내외 쟁점에 대해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시, 희곡, 음악과 함께 『Face』, 『Refugee Boy』, 『Gangsta Rap』, 『Teacher's Dead』 등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소설을 다수 발표했다.